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4년 3월 3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4장 8-11절

설교제목 :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탄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8절) 지극히 높은 산은 실제적인 산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더불어 마귀가 예수에게 천하만국을 보인 것은 환상일 가능성이 큼니다. 사탄이 예수를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보여주었습니까?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온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이 온 세상에 확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에덴의 삶을 상실하고, 광야와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담이 상실하여 쫓겨난 광야인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떤 유혹을 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사탄이 약속하는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첫 아담의 실패 이후에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방식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풍성함을 회복하려는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계속해서 이어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창11:4) 바벨탑은 한마디로 신전입니다. 대개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바벨탑을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크)에 건립된 지구라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신들이 천상의 거처로 이동하는 문이 있습니다. 지구라트의 바닥에는 신전을 있어서 그곳에서 신들이 추종자들에게 경배와 예물을 받기 위해 강림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구라트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계단을 신들이 저 세상과 이 세상을 자유롭게 편하게 오가는 계단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누리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실했습니다. 범죄한 이후 인간은 결국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풍성한 삶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바벨탑은 인간 자신들의 힘으로 풍성한 삶을 획득하려는 시도입니다. 바벨탑은 잃어버린 에덴의 복원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풍성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 자기 힘으로 에덴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곧 에덴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이 풍성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풍성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에덴 성전에서 추방당한 후 인류는 원형적 성소인 에덴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원래의 풍성한 삶 곧 영생을 얻고자 다방면에 걸쳐 심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고등 종교의 형태로, 때로는 더 우월하다고 간주된 정치체제의 형태로, 때로는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합리적 분배를 가능케 할 것으로 추정된 경제 체제의 형태로, 때로는 예술 혹은 과학 기술의 형태로 추구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구현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상실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십니다.(10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만드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의 개념을 국민, 주권, 영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실레이아는 바실류스란 단어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바실류스는 ‘왕’이란 의미입니다. 나라의 의미는 왕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의 통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고 했습니다. ‘주’라는 헬라어 ‘퀴리오스’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이 곧 왕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실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내게 오히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파라다이스를 약속합니다. 이 땅의 성공과 풍요를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성공과 풍요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확보하려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목적으로 사는 인생입니다.(마6:33) 이 땅의 것들은 우리 인생에 덤으로 주시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유혹은 한편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유혹 앞에서 동일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나가는 자신의 가로 막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마16:23) 우리 역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이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합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증명합니까? 주여 주여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의 통치를 따르는 삶으로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 백성됨을 증명합니다.(마7:22)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사탄이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는 유혹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영광 즉 성공과 풍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